

이븐 바투타란 불세출의 탐험가가 30년간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3대륙을 종횡무진하며 편력한 과정을 기록한 이 책은 인문지리학적 보고서이자 중세 동서교류의 귀중한 문헌이다. 더 나아가 탁월한 산문정신을 담은 여행문학의 고전으로 꼽히기도 한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완벽한 이 번역본에는 옮긴이의 고뇌와 의지도 문장마다 숨어 있다.

책갈피산책

## 《이븐 바투타 여행기(전2권)》

한 불세출의 탐험가가 남긴 '기사이적'의 기록

이븐 바투타 지음 | 정수일 역주  
창작과비평사/A5신/596면 내외/각 30,000원



《이븐 바투타 여행기(전2권)》의 독후감은 한마디로 '압도감'이다. 이는 이븐 바투타(1304~1368)란 불세출의 탐험가가 30년간(1325~1354)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3대륙 10만km를 종횡무진했다는 공간적·시간적 장대함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총체에 대한 경탄이자 그것을 현미경적 치밀함으로 기록한 탁월한 보고정신에 찬탄한 데서 우려 나온다. 언감생심 세계주유를 꿈꾸는커녕 자신의 울타리를 지키는데 전전공공하는 범인들에게 바투타의 모험은 위압적임에 분명하다.

### 미지에 대한 무상의 열정이 빛은 위대한 여행기

스물한살의 명문사족 출신인 바투타를 먼 길로 홀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계경영'이란 허황한 자기기만도, 물욕에 눈이 먼 자의 핏발 선 충동도 아니었다. 미지에 대한 무상의 열정, 청스러운 것에 대한 외경이 그를 혈혈단신 대장정에 나서게 한 내적 동기였다.

"가슴 깊이 간직한 순례의 굳은 의지와 성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으로 ... 남녀노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 마치 새가 동지를 떠나듯 고국(현 모로코 왕국 서북단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인 탕헤르)과 석별"한 바투타는 '기사이적' (奇事異蹟)에 몸을 맡기면서 중세시대 동서교류의 한 단면도를 보여준다.

바투타가 본 기사이적은 이 책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한 미망인의 분신에 대한 기록도 그 가운데 하나다. 바투타는 암지리란 도시에 있을 때 무슬림과 이교도의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의 미망인들이 가족의 영예를 위해 불 속에 뛰어들 일을 세밀화 그리듯 묘사한다.

역사가들은 이 책을 인문지리학적 보고서이자 중세 동서교류상을 기록한 문헌으로 고평한다. 이런 역사적 평가 이외에 이 책이 무엇보다 뛰어난 산문문학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 책이 기행문학의 고전 반열에 오른 까닭은 간결하고 정확한 묘사의 힘 때문이다. 바투타가 알렉산드리아를 묘사한 대목은 미문의 한 표본이다.

"이 도시야말로 그 숭고함과 장엄함, 그 황홀경의 아름다움에서 단연 독보적이고, 동서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기에 모든 선행가품(善行佳品)의 집산지이다. 따라서 모든 기사(奇事)는 거기에서 은현(隱現)하고, 모든 가화(佳話)는 거기에서 끝마무리를 짓곤 한다."

어느 책에서 "여행은 아주 못난이들의 낙원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관찰하고 명상하는 재주가 거세당한 모든 사람들의 낙원이다"는 신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바투타의 글을 읽다보면, 오히려 관찰하고 명상하는 재주가 능한 사람만이 여행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는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듯 그가 관찰한 대상에 숨결을 불어넣는 친품이 있는 모양이다.

### 원전번역에 공들인 번역자의 노고 담겨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정교한 번역이다. 1년 9개월에 걸친 고단한 노동, 그것도 영어의 몸으로 아랍어 원전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살린 옮긴이의 공은 경배할 만하다. 더구나 프랑스어 번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완벽했다는 사실은 국내 출판계의 한 개가로 기록될 만하다.

이 책의 역주에는 옮긴이의 방대한 지적 축적과 독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잘 드러나 있다. 까다로운 고유명사, 낯선 풍속이나 관습, 이슬람의 종교적 의례 등에는 어김없이 꼼꼼한 주석이 붙어 있다. 예컨대, 이슬람교에서 예배를 비롯한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전에 신체의 일부분만을 깨끗이 하는 것을 뜻하는 '부분세정'을 풀이하면서 "씻는 순서는 두 손—대소변처—입안—코속—얼굴—두 팔굽—귓속—두 발의 순이다. 모든 곳을 세 번씩 씻는다"고 달아놓았다.

이 책의 말미에 실린 <옮긴이 후기>는 한 번역가의 고뇌와 의지를 실감케 한다. "말 그대로 한증탕 같은 여름철, 더덕더덕 땀띠 돌아난 엉덩이를 마룻바닥에 붙이고 하루 열댓 시간씩 뭉개면서" 옮긴이는 "줄곧 앉아서 너무 오래 글을 쓰다보니 엉덩이가 짓뭇개져 벽에 선반을 매고 일어서서 썼다"는 다산 정약용을 떠올렸다고 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실린 <이븐 바투타 여행로 전도>와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 여행로 전도>를 심상히 넘겨서는 안된다. 이 지도는 옮긴이의 개인적 불행과 기지가 발휘된 작품이다. 옮긴이는 옥중에서 우연히 토막종이를 주워 이 종이를 12조각으로 나눠 지도를 그렸다고 한다. —박천홍기자